

다산포럼



김성수  
성균관대 글쓰기교수

짧지 않은 지난 삶을 돌아보니 아내와의 연애 빼고 가장 행복했던 기억은 단연 국내·국외 여행이다. '고딩'(고등학교) 때 캠핑 가서 문청(문학청년) 가슴을 황홀하게 물들였던 동백정 낙조부터 '대 2'에 걸려 실존적 깨달음을 위해 투신하려 했던 낙산사 의상대의 시커먼 어둠, 2005년 남북한 작가들이 감격적으로 상봉한 백두산 천지의 일출, 유라시아 대륙 서쪽 끝인 까보다 호개의 낙조 빛내림, 마추픽추의 가슴 서늘한 풍광까지 인생 화면이 주마등처럼 스쳐간다.

2년 가깝게 이어지는 코비드 팬데믹은 '지구촌 시대'라는 말을 무색하게 만들었다. 우리 부부는 날마다 팬데믹을 넘어서 여행을 상상하며 지낸다. 엇그제는 빗속에서 접봉산 골배령 산길을 걷었고, 오늘은 TV로 '걸어서 세계속으로' '세계테마기행' 재방송을 본다.

'여행과 문학, 여행과 글쓰기'란 교양과목을 10년 동안 강의하였다. 처음에는 여행의 개념과 기원 및 문화적 의미를 가르쳤다. 신화시대 영웅 탐색담에서 소설과 영화의 기원을 찾기도 하였다. '길가메시 서사시',

팬데믹을 넘어서 여행을 상상하다

'오딧세이'부터 '인디애나 존스', '반지의 제왕'까지 예를 들었다. 그런데 반응이 영 신통치 않았다. 그래서 여행과 문학에서 '여행과 글쓰기'로 이름을 바꿔 직접 여행을 떠나고 답사하면서 여정과 소감을 글로 쓰는 방식으로 운영 방식을 짰 바꾸었다. 호응이 커졌다.

학교 위치도 반전에 기여하였다. 학교가 한양도성과 궁궐, 대통령궁(청와대), 북촌에 둘러싸여 있고, 문묘(성균관)도 있다. 따로 멀리 갈 것도 없이 교내에서 답사를 시작하였다. 정문의 하마비와 탕평비자를 보고 문묘의 대성전, 명륜당, 동재, 서재를 거쳐 후문 고갯길로 올랐다. 북촌 8경을 답사하였다. 주민 생활공간이 라 절대 정숙을 요하지만 모처럼 야외에 나온 학생들이 수다를 떨고 인증 샷 찍는 것까지 막을 수는 없었다. 북촌 전망대에서 인왕산, 북악산, 경복궁, 민속박물관, 청와대, 총리공관, 정부서울청사를 조망하며 미래의 너희를 거쳐라고 너스레도 떨었다.

다음에는 서울 성곽을 답사하였다. 창외문(북소문)에서 출발하여 말바위, 와룡공원, 성북동 성곽길, 혜화문(동소문), 낙산공원을 거쳐 흥인지문(동대문), 광희문에 이르러 남산을 바라보았다. 한양도성 순성(巡城)놀이를 재연한 셈이다. 뒤에는 궁궐 답사. 학교 답을 긴 장정궁 흥화문에서 집합하여 명정전, 함인전, 통명전, 춘당지를 구경한 후 함양문을 통해 창덕궁으로 넘어갔다. 인정전, 선정전, 회정당, 대조전을 거쳐 입장권을 새로 끊고 후원에 들어섰다. 부유정, 영화당, 주합루, 애련정, 관람정, 존덕전, 정의정까지 갔다가

나오는 길에 연경당을 거쳐 돈화문으로 나왔다. 어떤 때는 정계전 광교부터 수표교까지 걸었다.

강의실과 컴퓨터, 스마트폰, 영어책에 갇혀서 스펙 쌓기에 몰두했던 학생들을 한 주에 2~3시간씩 무조건 걷게 하였다. 문화재 해설사 역할도 하면서 인생 선배의 조언도 덧붙였다.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조별로 1박 2일 여행, 답사를 다녀와 기행문을 쓰게 했다. 그랬더니 처음엔 몹시 힘들어하면서도 즐거워하였다. 지식·정보가 아닌 삶의 지혜를 터득하는 보람이 차츰 공유되었다.

코비드 팬데믹 시대에 여행을 꾸꾸는 것은 뜸없게 보이거나 사치로 생각될 수도 있다. 그래도 여전히 다 갖춰지면 그때 가서 여행을 다시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바로 '저질렀으면' 한다. 꼭 해외여행이 아니더라도 국내에도 여행·답사할 곳이 많다. 공간 이동이나 세상과의 만남이 여행 목적이라면 스마트폰과 랜선만으로 충분하다는 분도 있다. 그들에게는 눈만 즐거운 관광 유람이 아니라 고생 여행을 권한다. 인증 샷을 찍고 순간의 감동을 음성 녹음이나 실시간 메모로 남기면 더 좋을 것이다.

팬데믹이 비대면 가상 만남을 강제하면서 사람들의 직접 만남이 막 줄어들고 있어 걱정이다. 여행을 하면서 뽕으로 낫는 현장을 체험해야 비로소 내가 누군지 실감하게 된다. 그와 함께 나와 다른 타인에 대한 배려와 너그러운 이해를 체득된다. 눈빛과 손길을 직접 나누는 만남이 일상화되어야 '협종' '협박' 같은 증오·배척의 바이러스도 사라진다.

청춘 특특



박영진  
조선대 자유전공학부 1년

글을 시작하기에 앞서 '분노'라는 키워드는 한병철 교수의 책 '피로 사회'를 읽고 진행한 독서 토론에서 영감을 얻은 것임을 밝힌다.

우리는 부조리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빈번하게 불만과 분노를 느끼며 살아간다. 불만과 분노의 대상은 정부가 될 수도 있고 교육 체제나 가정이 될 수도 있으며, 심지어 자신의 삶 자체일 수도 있다. 나는 이러한 분노를 적절하게 표출하는 것이 세상을 바꾸는 방법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내가 도출한, 분노를 통해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메커니즘은 아래와 같다.

먼저 우리는 특정 사건이나 현상에 대한 무의식적 인식이 의식적인 인식으로 바뀌는 계기를 통해 그 사건이나 현상에 관심을 가지게 된다. 그 관심을 통해 사건이나 현상에 대한 문제의식 정립을 가능하게 하며, 이를

세상을 바꾸는 분노

통해 우리는 약하거나 강한 내적 분노를 느끼게 된다. 사회 변화 역시 개인적인 분노 표출, 혹은 비슷한 내적 분노를 느낀 사람들과의 연대를 통해 시작되는 것이다.

하지만 무의식의 의식화가 단순히 내적 분노의 단계에서 끝난다면 이는 파중에 불과할 뿐 세상을 바꿀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분노'를 어떻게 표출하는가가 중요한 핵심이다. 이를 통한 긍정적인 사회 변화의 예로는 시민혁명, 민주화운동, 여성·아동 인권운동, 촛불시위, 투표, 청원 등 많은 곳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처럼 당연하다고 느껴온 현상이나 사건에 대한 무의식이 인식으로 바뀌는 순간 변화가 찾아오게 된다. 반면 분노에 따른 변화가 부정적으로 나타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

자신이 분노에 휩싸여 제삼자에게 큰 고통을 주고 있지 않은지, 분노의 방향성이 옳은 것인지 끊임없이 자문해야 한다. 또한, 다수의 의견이 진리인 양 그들을 따라서 무작정 분노하는 무지함을 경계해야 하며, 이견을 가진 사람이나 집단에 대한 혐오도 조심해야 한다. 이는 근거 없는 혐오로 인한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들어 낼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더불어 체제에 무너지지 않아야 한다. 우리는 시민의 권리를 양도받아 권력을 행사하는 사람들과 우리에게 가치관을 주입하려는 기업·기관들에 대해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고 비판해야 한다. 자신의 이익과 그들만의 공동체 이익을 위해 화려한 술수로 언제나 분노를 그럴듯한 모습으로 바꾸어 현혹할 수 있으며 그러한 권력 또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욱 유의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미지근한 물 속에서 천천히 끓어오르는 물이 끓지도 못한 채 죽어가는 '냄비 속의 개구리'가 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사회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주위의 당연하다고 여겨지는 것들에 자극을 느끼는 민감하고 예민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사회 변화라는 결과는 거창해 보일지 몰라도 그 시작은 개인의 문제의식과 관심으로부터다. 과도기라서 어쩔 수 없거나 시대를 잘못 타고났거나 하는 핑계는 잠시 접어 두길 바란다. 미래 세대의 현재를 빌려 쓰는 과거의 우리는 미래 세대에게 지금보다 더 나은 환경을 물려줘야 할 의무가 있으며, 우리의 삶은 그 누구도 대신해줄 수 없다.

또한 분노는 연대할수록 강해지는 특성이 있다. 무모하고 무지한 연대는 화를 입지만 올바른 가치관을 지니고 더 나은 사회를 위해 연대하고 분노한다면 바람직한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변화의 주체가 되어 끊임없이 공부하고 사고하며 분노해야 한다.

기후변화와 홍수 대응을 위한 섬진강의 과제

다. 반면에 한강, 낙동강 그리고 금강은 200년 빈도의 홍수에 대응토록 관리하고 있어, 섬진강의 상대적인 관리 부족함에 대한 아쉬움이 남는다. 수해 원인 조사 결과에서도 섬진강댐 홍수 조절 용량(6.5%)은 전국 평균 댐(17.2%)의 약 40% 수준으로 홍수 대응 능력이 부족하여, 근본적인 다목적댐의 최우선 순기능인 홍수 조절 용량 확보를 위한 특단 대책의 필요성을 요구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관련 기관과 지자체 그리고 물을 이용하는 유역민들 사이에 상호 이해와 협력이 중요하다. 즉 홍수 조절 용량의 추가 확보는 댐의 물을 이용할 수 있는 양을 조정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물관리기본법에 따라 유역의 물관리 정책을 다루며 분쟁 상황에 대한 조정 역할을 할 수 있는 국가·유역물관리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하다. 조속한 시일 내에 이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있는 테이블이 만들어 지기를 기대해 본다.

둘째, 안전한 섬진강을 위해 하천 시설 관리를 위한 투자에 소홀히 하지 않았는지, 또는 눈앞의 편의를 위해 불안하게 관리하지는 않았는지에 대해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한국하천일람(2000년 국토교통부)에서 국가 하천 제방 정비 비율은 섬진강 61.4%로서 분류의 제방 관리를 위한 시설 투자가 부족했음을 알 수 있다. 섬진강 지방 하천의 정비율 또한 35.5%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 금번 수해 원인 조사 결과 역시 이와 궤를 같이한다. 즉 하천 정비의 지연으로 인한 국가 하천과 지류 지천 합류부의 제방고 부족 및 무제부 구간에서의 침수가 주요 피해 원인으로 제시됐으며, 배수펌프장·배수문 등 시설물의 관리 소홀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내년부터 국가하천 관리가 국토교통부로부터 환경부로 이관된다. 향후 섬진강의 수량과 수질을 균형있게 관리하면서 유역민과 함께 지속 가능한 삶의 터전을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는 환경부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셋째, 홍수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소통과 공동 대처 강화가 필요하다. 올해 홍수 피해 문제를 마무리하면서 환경부, 국토부, 수자원공사, 지자체 그리고 주민 대표 등과 함께 다목적댐의 홍수기 준비 상황 및 운영 방법, 댐 방류시 주의 사항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등 협업 기반의 홍수 대응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바람직한 일이다. 한국수자원위원회는 수해 개선 대책으로 섬진강 홍수통제소의 신설을 제시하였는데, 이를 통해 섬진강댐의 홍수 조절 상황과 섬진강 분류의 수위 변화를 종합하여 대응할 수 있도록 최적화된 수량 조절 체계의 확립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더불어 전라남도의회에서도 국가하천 관리가 환경부로 이관되는 상황에서 섬진강유역청 신설을 건의하고 있다. 이에 맞추어 다양한 현실에 맞는 매뉴얼의 보완도 이루어져야 하겠다.

이제는 섬진강이 은어와 수달이 만겨 주고 연어가 돌아오는 아름다운 옛 모습으로 돌아가고, 섬진강 유역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중앙 정부와 지자체, 기관, 지역 주민과 전문가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 아울러 수해 피해 주민들의 아픔을 해소하기 위해 모두가 노력해서 빠른 시일 내 해결되기를 희망한다.

社說

대선 직행 이재명 후보 남은 과제 만만찮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에 선출됐지만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만만찮다. 그중에서도 '대장동 개발 의혹'은 그가 넘어야 할 마지막 산이다.

이 후보는 3차 국민선거인단 투표에서 30%에도 못 미치는 저조한 득표율을 기록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낙낙한 승리'가 아니라 턱걸이 과반 득표의 '아슬아슬한 승리'를 거둬 수 있었다. 여기에는 '대장동 의혹'에 대한 민심이 크게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선에서는 의혹의 완전한 해소와 함께 중도 확장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로 꼽힌다.

지역 순회 경선에서 과반 승리를 이어오던 이재명 후보는 경선 마지막 관문인 국민·일반당원 3차 선거인단에서는 이낙연 전 대표에게 더블스코어로 뒤져 과반을 턱걸이로 넘겼다. 담심(권리당원)의 강력한 지지는 확고했으나 민심(국민과 일반당원 선거인단)의 이탈도 확인할 수 있는 결과였다. 3차 선거인단에서 대장동

관련 새로운 의혹이 붓물처럼 쏟아져 나오던 시기에 모집이 이뤄졌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에 크게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3차 선거인단은 민주당 현역 국회의원들이 모집한 1~2차 선거인단과 달리 개발 참여 비율이 가장 높아 중도층 성향에 가까운 집단이라는 평가가 나오는데, 이 후보의 3차 선거인단 투표 참여율 중도층의 이탈로 볼 수 있는 까닭이 여기 있다.

이제 이 후보에게 남은 과제는 그 불길이 어디까지 번질지 가능하기 힘든 '대장동 의혹'에서 벗어나 '불안한 후보'라는 이미지를 지우는 일이다. 게다가 일부이 낙연 전 대표의 지지층에서 '이 지사를 지지하지 않겠다'는 목소리도 높은 만큼 호남의 표심을 본선에서 흡수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 호남 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빠르게 이탈하고 있는 젊은 층과 중도층의 표심을 사로잡는 것도 이 지사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다.

장애인 보조금 가로채다니 어찌 이런 일이...

장애인 요양보호 서비스를 하지 않고도 실제 한 것처럼 허위로 기록해 수십 억 원의 국고보조금을 빼돌린 자활센터 관계자들이 적발됐다. 화순경찰은 최근 화순군 자활센터 총무팀장 A(38)씨와 장애인지원팀장 B(55)씨를 사기와 업무상 횡령, 국고보조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과 공모해 부당 수익을 챙긴 요양보호사 44명도 불구속 입건됐다.

이들은 지난 2017년 1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하지도 않은 재가 장애인 요양보호 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근무 시간을 허위로 작성해 국고 보조금 29억여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요양 서비스를 시작할 때와 끝날 때 요양보호사의 휴대용 단말기에 장애인의 전자바우처 카드를 찍는 방식으로 근무시간을 기록하는 과정에서 위치 정보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은 "군청에서 시킨 일이다"

"원래 절차가 그렇다"라는 말로 장애인들을 속여 전자바우처카드를 회수해 가지고 다니면서 한 번에 4시간에서 8시간까지 근무시간을 조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허위 근무 기록을 작성하는 직원까지 고용해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사건은 장애인 복지 증진에 힘써야 할 자활센터 직원들이 되레 요양보호 서비스는 외면한 채 막대한 현세를 가로챈 중대 범죄 행위다. 국가보조금을 '눈먼 돈'으로 여기는 이러한 범죄에 대해서는 엄벌해야 마땅하다. 공무원을 센터장으로 파견한 화순군도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한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아울러 날로 확대되는 사회복지 분야의 보조금이 과연 꼭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인 만큼 자체에 전남도나 화순군은 복지 분야 보조금 집행 실태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를 벌여야 할 것이다.

無等鼓

최근 넷플릭스를 통해 방영된 우리나라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 세간에서 큰 화제가 되고 있다. 국내를 넘어 세계적 신드롬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이다. 오징어 게임은 넷플릭스가 정식으로 동영상 서비스를 하는 83개국에서 최소한 차례 이상 '가장 많이 본 콘텐츠' 1위를 차지했다. 또한 넷플릭스 출범 이후, 특정 영화나 드라마가 서비스 국가 전체에서 1위를 기록한 첫 사례로 기록됐다. 전 세계 시청 인구가 8천만 명 이상 되는 것으로 추산되는 등 그야말로 대박이 난 것이다.

오징어 게임

'오징어 게임'은 40대~50대 이상 중장년층에게는 아주 친숙한 놀이이다. 어릴 적 친구들과 동네 공터나 학교 운동장 구터에서 함께 해 봤을 것이기 때문이다. 땅바닥에 지름 1~2m 정도의 동그라미를 그리고 그 밑에 이보다 두 배 정도 큰 삼각형과 사각형을 이어 그려 안팎에서 몸싸움을 벌인다. 오징어 몸통 아래의 출구를 기점으로 동그라미로 진입하려는 공격 진영과 이를 막아 내려는 수비 진영으로 나뉘어 게임을 하는 방식이다. 이 과정에서 친구들과 밀고 당기다 웃이 찢기거나 넘어져 무릎에 상처가 나는 경

우도 많이 집에 돌아가면 어머니에게 타박을 받았던 기억이 새롭다.

이 같은 어린이들의 놀이를 감독은 적자생존의 냉혹한 현실에 극적으로 결합시켰다. 추억의 놀이를 바탕으로 짓밟지 않으면 짓밟히는, 잠재적 경쟁자인 타인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는, 그 잔혹한 악육강식의 세계를 적나라하게 그려 낸 것이 다. 여기에 자본주의 체제에서의 경제적 불평등은 물론 계급 및 경쟁사회의 상징성을 드라마 곳곳에 배치,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을 되돌아

보게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오징어 게임이 시청자들의 공감을 이끌어 낼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인간에 대한 연민이 날기 때문이다. 배신이 판치는 인간 군상의 민낯이 드러나는 참혹한 현실과 대비되는 '함께 살아가자'는 메시지가 큰 울림을 남기고 있는 셈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우리가 지향하는 근본적인 힘은 경쟁과 지배가 아닌 인간에 대한 연민과 배려라는 점을 역설하고 있는 듯해 코로나19 시대에 시사하는 바가 더욱 크다는 생각이 든다.

/임동욱 선임기자 겸 서울취재본부장

기고



조기안  
초당대학교 교수

섬진강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강으로, 전북 진안군의 데미샘에서 발원하여 임실·순창·남원·구례·국성을 거쳐 남해 바다까지 600리 물길을 이룬다. 모래가 고와서 두치강·모래가람·모래내·다사강·대사강·사천·기문하 등으로 불리기도 하였다. 지리산의 맑은 물을 담아 흐르는 섬진강은 아름다운 자연의 모습으로 생명을 기르며 우리의 삶과 함께 지금껏 묵묵히 흘러왔다.

그러나 최근 산업의 발전과 함께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기후변화는 우리의 강과 삶의 터전에 과거 경험하지 못한 기록적인 폭우와 가뭄, 그리고 생태계의 변화라는 새로운 해결의 숙제를 안겨 주었다. 정부는 지난 8월 3일 섬진강 등 댐 하류 수해 원인 조사 결과를 최종 발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가 미래의 삶을 위해 관심을 갖고 집중해야 할 일들을 되짚어 보고자 한다.

첫째, 우리가 기후변화에 따른 폭넓은 강우 변동에 적응하기 위해 실질적인 준비를 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반성과 개선의 노력이 필요하다. 섬진강 수계의 그동안 홍수 방어를 100년에 한 번 볼 수 있는 강우에 대응하도록 준비된 댐과 하천에서 홍수를 분담하고 있었